

Title: 주인님, 어디 계세요?

#1

그날은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.

#2

하늘이 바다를 닮은 건지,

바다가 하늘을 닮은 건지

한 점 구름도 없던 고요한 여름.

주인님에게도 그런 날이었을까요?

#3

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요.

**저**는 이곳에 있어요.

주인님, 어디 계세요?

---

<Grammar point>

1) 존댓말과 낮춤 표현

All these sentences are finished with -요.

“저(bold, red)” instead of “나” to indicate himself.

Second, there are some metaphorical method.

2) 비유법

하늘이 바다를 **답은** 건지, 바다가 하늘을 **답은** 건지

시간이 **멈춘 것처럼**

<Main words>

명사 Noun: 하늘, 바다, 시간

대명사 pronoun: 어디, 이곳

동사 verb: 답다

형용사 adjective: 있다, 없다, 고요하다